

신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유형

- 다양하게 발표하는 신도시, 어떻게 불러야 하나 -

- 1960년대 건설된 공업신도시를 비롯하여 최근 발표된 신행정수도, 혁신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으나, 이 도시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불리어지고 있지 않아 이름만 가지고는 형상을 떠올리기 어려움
- 신도시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i) 도시의 기능 및 목적, ii) 도시의 규모, 그리고 iii) 기존도시와의 관계를 들 수 있음
 - 기능(목적)에 따라 주택공급형, 생산형, 특수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
 - 생산형은 다시 산업기능형, 행정기능형, 업무기능형, 교육·연구기능형 등으로 구분
 - 국방신도시처럼 특정목적을 강조하는 경우는 특수형으로 구분
 - 규모로는 자족적 생활기반을 갖출 수 있는 인구 10만명 이상을 도시형, 그 미만을 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음
 - 기존도시와의 관계에 따라서 독립형, 종속형, 의존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
 - 종속형은 다시 재개발형과 신개발형으로 구분
- 신도시 명칭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르는 것이 바람직함
 - 먼저 신도시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업무, 산업, 행정 등 공급목적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고
 - 다음으로 규모 및 기존도시와의 관계에 따라서 신도시, 신시가지 또는 단지나 타운 등으로 구분

1. 신도시 유형구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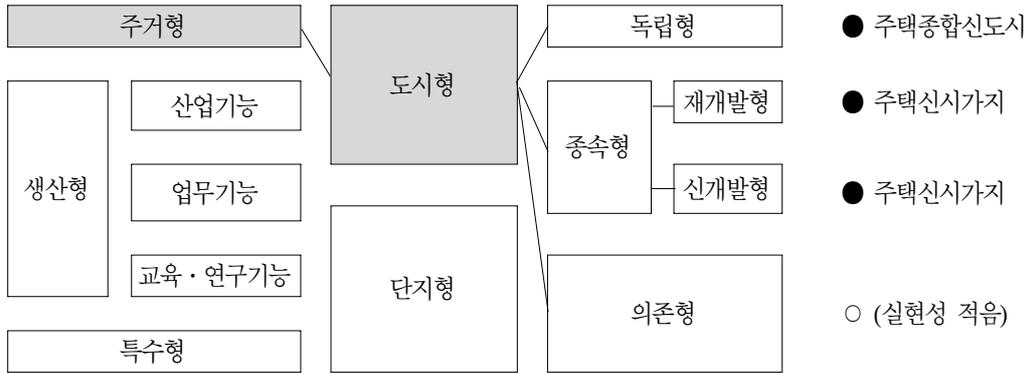
- 새로운 시가지 개발은 i) 기능 및 목적, ii) 규모, 그리고 iii) 기존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신도시 유형구분 기준 및 사례는 다음과 같음

기능 및 목적에 따른 유형		규모에 따른 유형		기존도시와의 관계에 따른 유형				
주거 공급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키거나 주택공급차원에서 개발 일산, 분당 등 5개 수도권 신도시(1980s)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신도시 Letchworth Garden City 등 (영국 1930s) 	도시형 (인구 10만명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매, 의료, 교육 문화부문 등에서 자족적 일상 생활기능 확보가 가능한 규모의 신도시 	독립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도시와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아산신도시, 남양주신도시, 안산신도시 등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조업 등 산업입지의 배후도시로 개발되는 신도시 울산, 포항(1960s) / 구미, 창원, 여천(1970s) / 동광양 등(1980s) 			생산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기 보다는 단일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개발되는 중소규모의 배후신도시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단지(대덕, 오송 등)나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지구 등이 포함 	종속형 (new town in town)	재개발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도시 내부의 미개발지 또는 유휴지에 개발되는 시가지정비 서울시 뉴타운 등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도시의 업무기능 분산을 위해 개발되는 신도시 라 데팡스(프랑스), 배터리파크시티(미국) 						신개발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도시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시가지 확장 잠실(1970s), 목동(1980s), 상암새천년신도시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 및 연구기관의 집적화를 위해 개발되는 신도시 대덕연구단지(1970s), 쑤쿠바학원연구도시(1960s) 	단지형 (인구 10만명 미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위기능은 모도시에 대한 의존성이 높음 	의존형 (위성도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도시에 대한 기능 및 물리적 거리가 일정 정도 유지되도록 개발되었으나, 대도시기능 의존형이 되는 경우 수도권 5개 신도시: 서울 도심에서 약 20~30km 이내 입지 다마 뉴타운: 동경 도심에서 약 20~40km 이내 입지 파리 5개 신도시(New Town in Ill-de- France region)가 파리 도심에서 약 7~30km 이내 입지 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수한 목적 및 정책에 따라 형성되는 신도시 캔버라 등 신행정수도 토요타시 등 기업신도시 	특수형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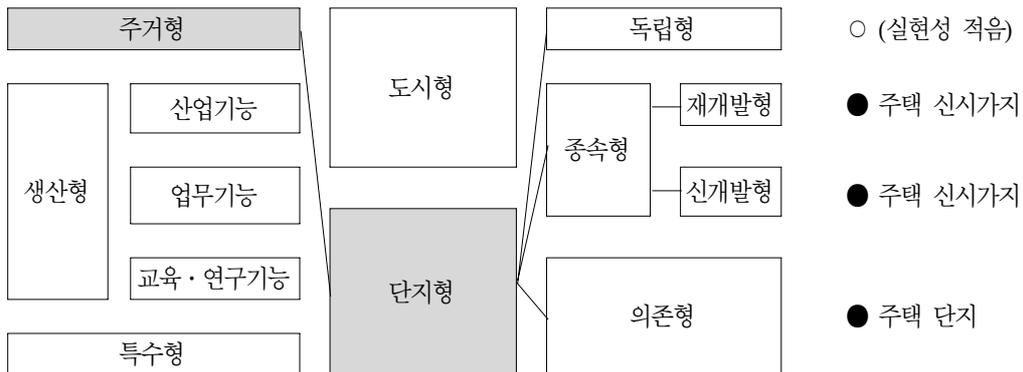
2. 신도시 유형 분류

1) 주거형 신도시 유형

○ 도시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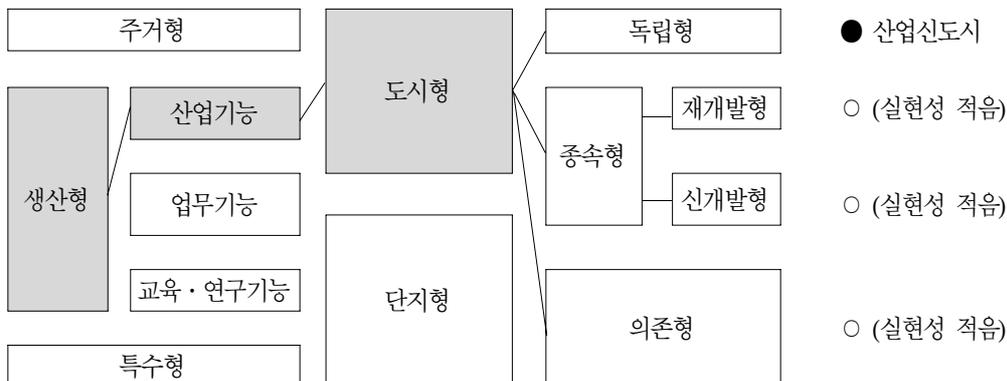


○ 단지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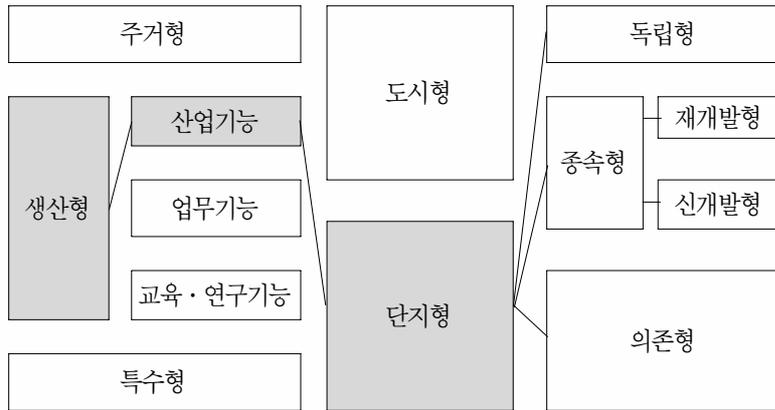


2) 산업기능 신도시 유형

○ 도시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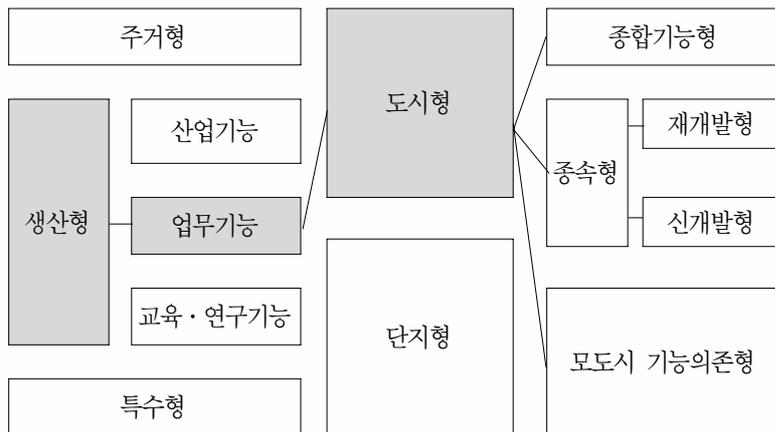
○ 단지형



- 산업단지
- 산업단지
- 산업신시가지(산업타운)
- 산업단지 (또는 산업타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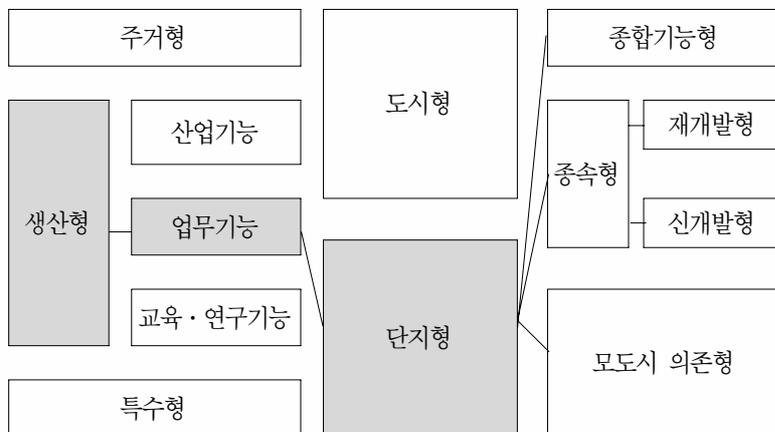
3) 업무기능 신도시 유형

○ 도시형



- 업무신도시
- 업무신시가지(또는 업무타운)
- 업무신시가지(또는 업무타운)
- (실현성 적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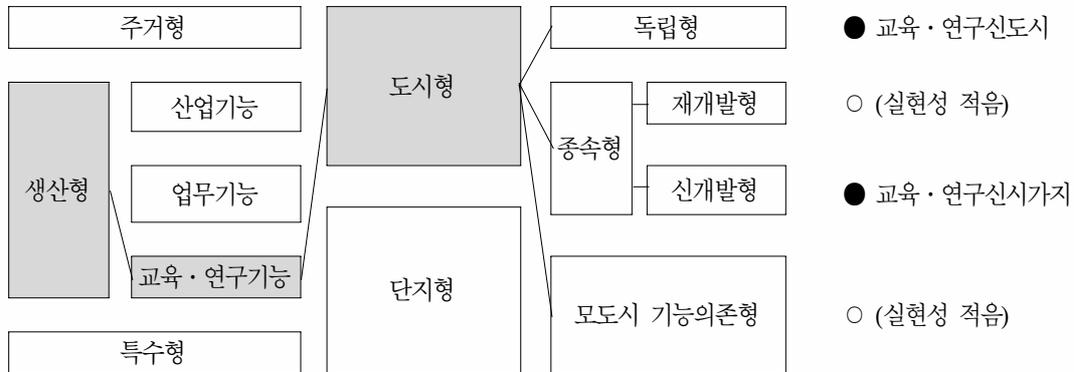
○ 단지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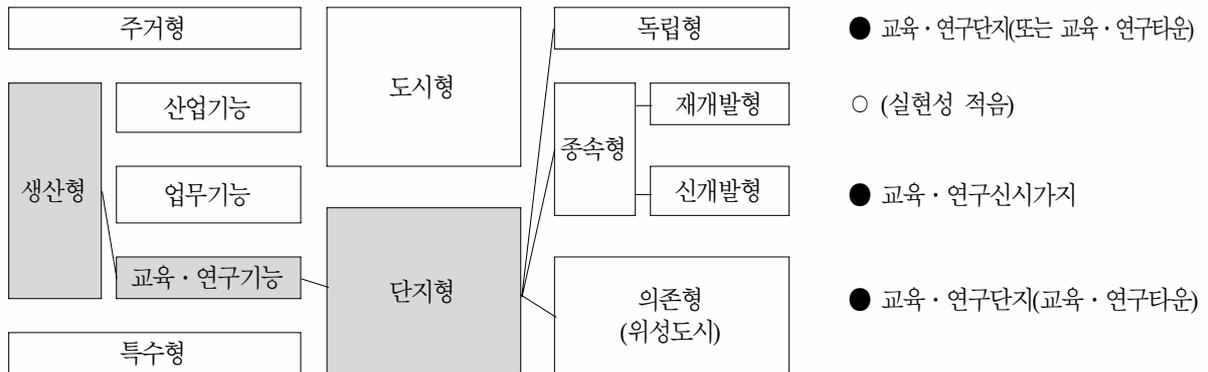
- (실현성 적음)
- 업무신시가지(또는 업무타운)
- 업무신시가지(또는 업무타운)
- 업무단지(또는 업무타운)

4) 교육·연구기능 신도시 유형

○ 도시형



○ 단지형



3. 신도시 유형에 따른 명칭

- 우선, 주요기능 또는 건설목적에 따라 주택공급, 산업단지공급, 교육, 문화, 연구, 행정 등으로 명명할 수 있음
 - 도시의 모든 기능을 갖추는 대규모 도시는 ‘종합’이라는 기능 명칭 부여를 검토
- 규모에 따라서는 일상생활기능이 충족될 수 있는 규모(대략 인구 10만명 이상)인 경우 신도시라는 명칭을 붙이고, 그 이하의 단지 또는 타운이라 부르는 것이 바람직함
 - 인구 10만명 이상이라고 한 것은 구매, 의료, 교육, 위락문화 등에서 비교적 상위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규모임
 - 별도의 인구수용계획 없이 순수하게 산업, 업무, 위락, 문화, 교육 등의 기능만 들어서는 경우에는 ‘단지’로 명명할 수 있음(예: 연구단지, 행정단지, 온천단지 등)

- 단, 기존도시와의 관계로 볼 때 규모가 크더라도 기존시가지에 종속적인 경우에는 신시가지(예; 서울의 상계동개발과 같이 대규모이나 기존도시의 확장인 경우)로, 기존도시와 대등하거나 독립적인 경우에는 신도시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함
 - 규모가 작은 경우, 기존시가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신시가지로 부르고 이격된 것은 단지나 타운으로 부름
- 신도시 유형별 명칭(예시)
 - 수원이의동택지개발사업지구는 행정기능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성시가지에 인접한 사업지구이므로 ‘이의·행정·신시가지’
 - 고양일산택지개발사업지구는 거의 독립적이고 도시로서 모든 기능을 갖추므로 ‘일산·(종합)·신도시’
 - 안양평촌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중심기능을 갖추나 안양시의 일부를 이루므로 ‘평촌·(종합)·신시가지’
 - 목포남악지구는 독립된 지역에 행정기능이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이므로 ‘남악·행정·신도시’
 - 서울시 상계택지개발사업지구는 서울시의 일부로 주택공급목적이 뚜렷하므로 ‘상계·주택·신시가지’
 - 서울시의 상암지구는 서울시의 일부로서 첨단업무기능이 들어가므로 ‘상암·첨단업무·신시가지’
 -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부산시 내리지역에 격리되어 조성되는 소규모 임대주택단지는 ‘내리·주택·단지’
 - 용인시에서 소규모로 분산되어 개발되는 주택위주의 단지는 ‘영통·주택·단지’
 -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는 대전시의 일부를 이루며 주거기능이 있으므로 ‘대덕·연구·신시가지’
 - 서울시 구로동의 산업단지 재개발에 의해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되는 경우에는 주변에 주택기능이 없으므로 ‘구로·첨단산업·단지’

국토연구원 민범식 연구위원 · 김형진 연구원(031-380-0253, bsmin@krihs.re.kr)